탈춤에 나타난 민중의식의 성장과정

이시대의 우리얼굴 1

Ⅰ

문화란 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근본적인 물음이어서 몇마디의 단어로 간략히 서술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상적인 대답이지만 필요로하는 것은, 일차적인 개념정리라도 되어야 우리의 논리를 진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여러 다양한견해들이 있겠지만 개중 우리가 관심갖는 것은 특히 연행예술적인 측면들이다. 한판 흐드러지게노는 그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현장성을 갖고 살아 움직이며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타고넘는,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짐의 가락이요 몸짓들이 바로 연행예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까닭이다.

현장에서 탈춤꾼들과 구경꾼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자나 익살, 진솔한 육담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풍물 타령 장단에 호흡을 맞춰 엮어내는 집단적 신명풀이로써 관객과 배우의 구별이 따로 없고 연희공간과 생활공간이 따로 없는 완전한 생활연희, 이것이 본디 우리 탈춤의 건강한 제 모습인데 근자에는 이것도 플롯 중심의 서구연극을 탐아가고 있는지 탈꾼과 구경꾼들이 서로 분리되어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연희로써만 기능하고 있는 추세인 듯하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러운것은 이렇게 마련되는 탈판마당에모이는 구경꾼이나 출꾼들이 서로 완전한 생활연희는 되지 않하면서 살아 뛰뛰고 숨쉬는 현실적인 생명력으로 자신을 봐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통문화를 재해석 할 뿐만 아니라 외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전통문화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중 우리가 관심갖는 것은 특히 연행예술적인 측면들이다. 한판 흐드러지게노는 그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현장성을 갖고 살아 움직이며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타고넘는,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짐의 가락이요 몸짓들이 바로 연행예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까닭이다.

오늘날의 우리문화는 누가 보아도 국적없이 흔들리는 정체불명의 것이요, 좀더 혹독하게 표현한다면 가히 문화의 난장판이다. 이에 과거의 것으로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혼과 해방의 공간을 확인하려는……

그런 중에도 다행스러운것은 이렇게 마련되는 탈판마당에모이는 구경꾼이나 출꾼들이 서로 완전한 생활연희는 되지 않하면서 살아 뛰뛰고 숨쉬는 현실적인 생명력으로 자신을 봐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통문화를 재해석 할 뿐만 아니라 외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전통문화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중 우리가 관심갖는 것은 특히 연행예술적인 측면들이다. 한판 흐드러지게노는 그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현장성을 갖고 살아 움직이며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타고넘는,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짐의 가락이요 몸짓들이 바로 연행예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까닭이다.

민중의 대동적 삶의지로 결집된 집단신명

그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공동체적 민중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장르가 우리에게 있어선 바로 전통극이 되고 전통극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도 특히 탈놀이, 탈춤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Ⅱ

우리가 탈놀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흔히 서구극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의 마당극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판 마당을 벌여놓은 놀이로써 민중들의 삶의 본디 바탕이 대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생활적 조건들로부터 연유된 것으로서 우리 민족에게있어 그것은 농경산업사회라는 사회경제적 규정성이 그 기본적인 대동의 틀을 제공하면서 살아 뛰뛰고 숨쉬는 현실적인 생명력으로 자신을 봐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통문화를 재해석 할 뿐만 아니라 외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전통문화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중 우리가 관심갖는 것은 특히 연행예술적인 측면들이다. 한판 흐드러지게노는 그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현장성을 갖고 살아 움직이며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타고넘는, 그야말로 함께 어우러짐의 가락이요 몸짓들이 바로 연행예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까닭이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러운것은 이렇게 마련되는 탈판마당에모이는 구경꾼이나 출꾼들이 서로 완전한 생활연희는 되지 않